

사회

너무 덥다

땀벌에 해수욕장 기피
빙상장·서점·계곡 북적
밤중 농사 '올빼미농부'도

광주·전남 열흘째 폭염특보

“더워도 너무 덥다, 차라리 덜 움직이는 게 최선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열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휴가 절정기를 맞아 35도를 오르내리는 살인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법이 다양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해수욕장보다는 도심 인근 계곡이나 빙상장 등에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 피서- 해수욕장은 한산=시민들은 최대한 덜 움직이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휴가가 절정에 이른 29일 광주시 동구 중심사 계곡에는 평소 인원보다 2배 가량 많은 2만6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더위를 식혔다. 이날 몰려드는 시민들로 이 일대는 교통혼잡을 겪었으며 오후까지 주차난에 시달렸다.

시원한 빙상장과 냉방시설이 잘 된 영화관과 대형서점은 단연 인기. 광주시 서구 염주동 실내빙상장에는 개장 이래 가장 많은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렸다.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일대와 상무지구 극장가, 서점 등에는 피서를 하며 문화활동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휴가 피크지만 전남지역 해수욕장들은 예상보다 한산했다. 광여·우럭 측개가 열리고 있는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는 주말 예년에 못미치는 2만여명의 이용객이 찾았으며 보성 율포해수욕장도 작년 수준인 2000여명 정도가 물놀이를 즐겼다. 다만 여수세계박탕화가 열리고 있는 여

수지역 14개 해수욕장은 주말 이용객이 8만여명을 넘어 엑스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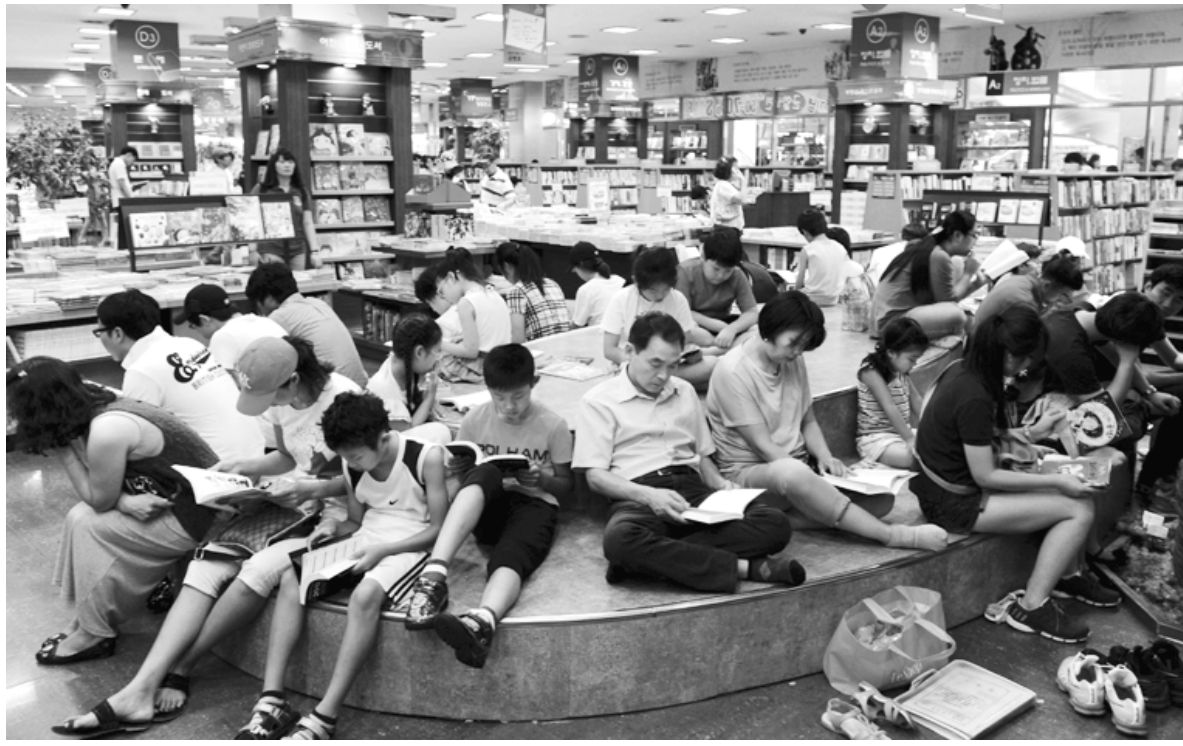
◇생활 패턴까지 바뀌=많은 시민들이 한 낮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새벽 시간대나 땀벌이 한 풀 꺾이는 오후 늦게야 움직이고 있다.

20년만의 폭염은 여름 농사로 바쁜 농민들의 작업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농민들도 한낮 밭이나 논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한낮을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일하는 '올빼미농부'까지 등장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운전저수지와 북구 문흥동 근린 공원 등지에는 낮엔 한산했다가 밤에는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아 피서와 운동을 즐기는 가족단위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

◇폭염 피해 잇따라=29일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연열질환자는 모두 20여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다.

지난 28일 낮 12시20분께 영광군 연산면에서 김모(67)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2시37분께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변에서 산책하던 고모(49)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어지럼증을 호소한 고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열흘째 이어진 2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위) 반면,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는 '살인폭염' 탓에 예년보다 적은 인파가 찾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인도 실종학생 숨진채 발견

무인도로 체험학습을 갔다가 실종된 학생 2명이 사흘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55분께 신안군 증도면 해섬 남서쪽 1.4km 해상에서 중학생 김모(16)군의 시신을, 오후 5시50분께 김군이 발견된 지점에서 2.7km 떨어진 해상에서 숨겨져 있는 박모(18)군을 발견, 인양했다. /서부취재본부=조관진기자 wncho@

군인권-트레일러 기사 강제추행 혐의

“귀가중인 여성을 따라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작거리던 20대 군의관과 헬기이트에서 요급 징수원에 대해 성기를 보여준 40대 트레일러 기사 등 강제추행혐의 잇따라 검찰에 적발.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대정지역 한 군부대 군의관인 서모(28)씨는 지난 27일 새벽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로 입구에서 A(여·22)씨를 추다보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 ○~또 트레일러 기사인 최모(48)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경 서구 원2순환도로 요급요소에서 통행료 징수원 B(여·38)씨에게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가 불구속 입건.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무안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숨져

5월 순천이여 전남서 울들어 두번째

지난 5월 순천에서 울 들어 전남지역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무안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에 사는 장모(여·57)씨가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하루 만에 지난 26일 숨졌다. 장씨는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지난 2009년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4일 거주지 인근에서 바지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12일에는 순천에 거주하는 추모(77)씨가 생선찌 등 음식을 먹은 뒤 발열과 함께 피부에 수포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3명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숨졌다. /오광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무단횡단 제지 여경 폭행

북부경찰, 40대 구속

무단횡단을 하다 여경에 적발된 뒤 오히려 여경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9일 “무단횡단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여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홍흥동 북구청 사거리에서 2차선에 걸쳐 40여m를 무단횡단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이모(여·27)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임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순경에게 “너가 서라고 하면 설 것 같냐.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팔과 머리 부위를 각각 2회씩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재수가 없어 걸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성범죄 2범 여고생 협박 또 성폭행

광주서부경찰은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손모(4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에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아파트에 낙서를 하고 있던 A양을 우연히 마주치자 “경비실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과 2범인 손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경찰도 이날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중국인 선원 조모(25)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40분께 여수시 고소동 B(여·64)씨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김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호관 권혁민